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에 관한 사례 연구

- 부모의 양육태도 개선을 중심으로 -

임춘택(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I. 서론

I.1. 연구 필요성과 선행연구

국내에서도 10년 넘게 인문치료¹⁾와 관련한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중심연구가 지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드물게 실제 치료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몇몇 문헌중심연구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학텍스트에 나타난 인물의 병리적인 모습을 병리학, 정신분석학, 문예학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오동식, 2009; 도기숙, 2010 외 다수), 특정 문학텍스트를 예로 들어 인물들의 병리 현상을 진단하고 치료 기능으로써의 문학(인문학)의 기능 및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채연숙 외, 2008), 독일 사회의 병리적 사례를 독일문화와 문학의 특징과 연관하여 분석하고 한국의 문학치료 연구와 실제의 정착을 모색한 경우(채연숙, 2011), 작품 내의 인물이 특정 문학을 접함으로써 문제 개선과 치료가 이루어졌음을 제시한 예(이민용, 2009), 치료사가 문학텍스트를 활용하여 내담자를 치료한 사례를 담은 문헌을 소개한 연구(노환홍, 2010), 문학의 치료적 기능을 분석하고 우울증과 관련한 치료의 일부 과정을 제시한 연구(변학수 외, 2006), 은유 개념부터 은유의 치료 기능에 관한 논문(이민용 2010) 그리고 문학, 독서, 글쓰기, 이야기,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개념과 방법을 활용한 인문치료에 관해서는 이민용의 다수의 연구가 있다. 이외에도 문학치료에 관한 연구들이 위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위의 연구들과 본 연구와의 차이점은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인문교육과 치료 차원에서 사례 중심 연구를 인문학을 전공한 연구자 역량에서 치료 수준과 방법을 설정하여 진행한다는 점이다. 인문치료는 문헌연구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방법 등을 활용하여 실제 치료 과정과 방법에 관한 사례도 제시하고 그 효과 등도 검증되어야 하는 분야에 속한다. 따라서 문학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정신분석, 병리진단, 심리기제 등에 관한 연구들 외에도 문학을 활용한 실제 치료 또는 교육과 치료를 병행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이론과 실제 간의 조화를 이루게 된다. 물론 문헌중심연구에 익숙한 문학전공자가 임상 상담심리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의도와 취향 문제를 위시하여 질적 연구, 양적 연구와 같은 연구 방법론 활용, 교육과 치료 대상자 관리와 돌봄 문제, 상담심리치료에 관한 이해와 교육 등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그러나 일련의 은유, 독서, 글쓰기, 이야기, 내러티브 등과 같은 인문교육과 치료만의 영역과 인문학자로서의 전문성을 치료 방법과 장점으로 삼고, 이것에 비중을 두어 치료과정을 진행하는 방법을 채택한다면 수월한 연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서도 정신과 전문의의 치료나 상담심리학 전문가의 치료보다도 방법 면에서 훨씬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효과 면에서도 높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내담자에게 본질적인 변화를 일

1) 문학치료, 시치료, 독서치료, 이야기치료, 은유치료, 스토리텔링치료, 글쓰기치료, 인문치료 등등 치료 관련 용어가 이처럼 세분화되어 있으나, 본 연구 기술의 편의와 함께, 이들을 아우르는 용어로는 '인문(학)'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인문치료로 명한다.

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²⁾

본 연구는 앞서 나열한 인문치료 연구들 가운데서도 은유, 이야기, 스토리텔링, 내러티브 개념과 관련한 연구이고 이것들을 치료 도구로 삼아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연구의 주요 기저가 되는 학자와 이들의 자료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 George Lakoff와 철학자 마크 존슨 Mark Johnson이 일상적 삶에서의 은유 사용에 관해 폭넓게 다룬 『삶으로서의 은유 *Metaphors We Live By*』³⁾; 독문학자 이민용의 ‘은유의 치료적 기능과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⁴⁾ 및 ‘이야기와 스토리텔링의 치유적 기능, 인문치료와 이야기치료를 천일야화를 중심으로 논의한 연구’ 외 다수의 연구; 실제 은유 교육과 치료를 위해서는 심리치료사인 밀턴 H. 에릭슨 Milton H. Erickson의 치료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한 이윤주 · 양정국의 『밀턴 에릭슨 상담의 핵심 은유와 최면』⁵⁾; 이야기치료의 현존하는 대가인 심리치료사 조지 W. 번즈 George W. Burns의 편저서 『이야기로 치유하기 -치료적 은유 활용 사례집- *Healing with Stories: your casebook collection for using therapeutic metaphors*』⁶⁾와 또 다른 그의 저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마음을 치유하는 101가지 이야기 *101 Healing Stories for Kids and Teens: Using Metaphors in Therapy*』 그리고 도리스 브렛 Doris Brett의 『은유적 이야기치료 *Therapeutic Storytelling Technique*』를 실제 교육과 치료를 위해 면밀히 검토하였다. 은유의 개념적 · 기능적 차원의 고찰과 은유의 치료 도구적 기법에 관한 문헌 외에도, 인간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정신과 치료 사례와 함께 다룬 M. 스캇 펙 M. Scott Peck의 저서들 『거짓의 사람들 *People of the Lie: The Hope for Healing Human Evil*』, 『아직도 가야 할 길 *The Road Less Traveled*』, 『그리고 저 너머에 *The Road Less Traveled And Beyond*』; 심리학과 상담심리치료가 인간의 자아를 지나치게 절대 시 한다는 점을 심도 있게 비판한 폴 비츠 Paul Vitz의 『신이 된 심리학 *Psychology as Religion*』, 『무신론의 심리학 *Faith of the Fatherless The Psychology of Atheism*』을 연구자의 연구 활동 및 연구 내용의 기저를 이루는 권위적인 자료로 수용하였다.

1.2. 연구 전개 및 방법

본 연구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앞서 언급한 국내의 ‘인문치료’와 관련한 주요 문헌중심 선행연구들 및 질적 연구의 부재와 필요성, 본 연구를 위한 주요 연구자와 이들의 문헌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구 주제로, 본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① 연구 참여

2) 심리치료의 방법, 대상, 치료자, 치료 상황 등은 사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방법만이 올바르고 효과적이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M. Scott Peck(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저명한 정신과 치료 전문의이자 베스트 & 스테디셀러 저술가)은 자신이 치료했던 많은 치료사례들을 『거짓의 사람들 *People of the Lie: The Hope for Healing Human Evil*』, 『아직도 가야 할 길 *The Road Less Traveled*』에서 제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진정한 치료자’는 단지 정규 교육과정과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에 의해 달성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치료자란 기술적인 자질과 함께, 영, 정서, 행위 면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자들, 끊임없이 영적성장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상식적이면서도 호소력 있게 기술하였다.

3) G. Lakoff, M. Johnson, 『삶으로서의 은유 *Metaphors We Live By*』 서울, 2006.

4) 이민용, 인문치료의 관점에서 본 은유의 치유적 기능과 활용, 카프카연구 23집, 한국카프카학회, 2010, 291~311쪽.

5) 이윤주 · 양정국, 『밀턴 에릭슨 상담의 핵심 은유와 최면』 서울, 2007.

6) G. W. Burns 편저, 『이야기로 치유하기 -치료적 은유 활용 사례집- *Healing with Stories: your casebook collection for using therapeutic metaphors*』 서울, 2011.

자들의 양육태도 점검과 개선', '② 이들의 은유적 이야기 치료 능력 개발'을 설정하였다. 본론에서는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이론과 치료사례,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 운영과 진행 방법, 실제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 사례를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진행된다. 치료 목적으로 개발한 은유적 이야기들, 연구 참여자 용 질문지의 서술 식 작성, 연구책임자와 연구 참여자의 만남 과정(모임, 상담, 논의 등)에 관한 내용, 은유적 이야기 치료 과정을 소개하는 것 등을 여러 양식의 글쓰기로 작성한다. 상담심리 분야에서는 근거 이론 방법론, 현상학적 연구, 내러티브 연구 등을 위시한 질적 연구방법을 양적 연구방법의 허점을 밝히고 양적 연구를 통해서 접근할 수 없는 연구 분야와 주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용되어 왔다.⁷⁾ 국내에서는 여전히 상담심리 분야에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비중이 지나칠 정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심리학계에서도 이것을 문제로 인식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⁸⁾ 이외에도 질적 연구방법론을 개발하는 연구자들 가운데는 시, 드라마, 소설 장르의 문학적 글쓰기, 내러티브 글쓰기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양식의 '연구 작품'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특별히 문학텍스트, 독서행위, 문예창작, 은유표현, 글쓰기, 이야기하기 등을 통합하여 심리치료 방법으로 활용하고 연계하는 문학 전공자들에게 질적 연구방법은 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연구방법임에 분명하다. 연구자는 문헌중심연구에서 요구되는 고도로 전문화되어 학문적이지만 '건조한 글쓰기'외에도, 논문 글쓰기에서도 질적 연구방법론을 기반으로 '생생한 문학세계'를 펼칠 수 있다.⁹⁾

I.3. 연구 문제

①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 참여자(자녀 양육자)가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본인 자녀에 대한 전반적인 양육태도(언어 사용, 공감 능력, 수용력, 문제해결방법 등)와 특정 문제행동을 대하는 태도에 어느 정도의 변화와 개선을 이루었는지를 확인한다.

②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 참여자(자녀 양육자)가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양육자로서의 양육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은유적 이야기 치료(개발과 실행)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는지 확인한다.

II. 이론적 배경

7) 참조,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II Writing』,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2013, 4~26쪽. / Carl J. Sheperis etc., 최한나 외 역 『상담연구방법론: 양적, 질적, 혼합적 방법론 *Counseling Research: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Mixed Methods*』, 서울, 학지사, 2013.

8) 연문희, 박남숙, 「교육과 상담에서의 질적 연구」,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연구 14권 1호, 2001, 243~263. 외 다수의 논문.

9) 이러한 연구의 방법, 선행연구, 사례를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 김영천, 이희용, 「질적연구에서의 글쓰기: 문학적 표현양식들의 이해」, 중등교육연구 56권 3호,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2008, 187~222쪽. 본 연구에서는 결론 부분을 질적 연구의 방법 가운데 하나인 문학적 표현 방법으로 기술하여 논문 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은유 치료, 이야기 치료, 은유적 이야기 치료, 스토리텔링 치료, 내러티브 치료로 일컫는 치료에 대한 관심이 최근 국내에서도 높아지면서 외국 이론과 치료 실제 사례의 국내 소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론과 치료 실제로의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자는 이민용 교수가 있다. 문학연구방법을 통한 그의 연구는 이제까지 정신의학, 심리학, 아동학 등에서 치료 목적으로 활용해 온 은유를, ‘은유의 본고장’인 문학 분야에서 은유의 치료 기능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정립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¹⁰⁾ 그러므로 먼저 그의 연구물들을 살펴본 후 이어서, 은유 치료 전문가인 번즈, 내러티브 치료 연구 관련 도달드 스펜스 Donald P. Spence, 영성과 심리학의 권위자 비츠와 스캇 펙, 그리고 김춘경과 고미영 등의 문헌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이민용은 ‘이야기 해석학과 이야기 치료(2010)’ 연구에서 폴 리코르 Paul Ricoeur의 “이야기 정체성 narrative identity”에 관해 논하면서 “뤼토스-미메시스, 허구적 이야기와 역사적 실제 이야기의 연결고리, 해석학적 순환에 관한 이론이 이야기를 치유적으로 활용하는 데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음”을 기술한다. 은유적 이야기 치료의 핵심은 과거 상처로 인한 내담자의 손상된 이야기 정체성(실재)에 또 다른 이야기가 개입, 투입되어(치료를 위해 고안된 이야기), 손상된 이야기(실재 이야기)를 대체, 변형함으로써 내담자를 치유하는 것에 있다. 실제 은유적 이야기 치료에서 치료자는 내담자의 문제 이야기에서 작용하는 뫼토스(플롯: 사건들 간의 인과 관계)를 대체, 변형하는 치료 시도를 통해 내담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다. 그 이유는 리코르가 말한 바와 같이 “이야기 정체성은 불변의 정체성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재구성되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대안적인 은유적 이야기를 통한 내담자 치료가 가능하다. 여기서 ‘대안적인 은유적 이야기 치료 과정’은 이민용 교수가 치료 방법으로 언급한 “문제에 물들지 않은 자신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이자, 번즈가 은유적 이야기 치료 과정의 두 번째 단계로 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내담자의 자원 개발’ 방법과 의미적으로 유사하다.

이민용은 ‘서사 담화와 정신분석학 기반의 내러티브 치료(2013)’ 연구에서 실제 치료와 문학의 서사담화(discourse) 개념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제시하였다. 그는 “스토리(story)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화자의 주관적 개입 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되는 내러티브의 핵심 내용을 이루는 추상적인 줄거리라면, 디스코스는 사건의 인과적 재배열, 서술 인칭, 시점, 관점, 심리적 거리, 어투와 문체 혹은 정조(情調, tone)나 목소리, 시간, 공간 등의 요소들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생긴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먼저는 내담자 내면의 스토리가 디스코스 되는 차원 즉 내담자가 스토리로 담은 자기 인생에 대한 입장, 관점, 심리적 거리, 표현 어투나 목소리 등에서 찾는 것과 관련되고, 다른 하나는 치료자가 치료적 내러티브를 내담자의 내면에 심어줄 때도 치료적 자기 스토리에 대한 내담자의 디스코스 태도와 능력(향상)과 관련한다. 이는 실제 은유 활용 치료 상황과 문학의 디스코스 개념을 연결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담심리치료와 넓은 의미에서의 ‘문학하기(치료 목적)’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연구 사례라 할 수 있다.

은유 치료 실제와 이론에 있어서의 은유 치료 전문가인 번즈는 자신과 그의 주위 치료자의 치료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였다. 번즈를 위시하여 리처드 R. 코프 Richard R. Kopp, 마이클 D. 압코 Michael D. Yapko, 조이 넬 Joy Nel, 조이스 C. 밀

10) 참조, 이민용, ‘인문치료의 관점에서 본 은유의 치유적 기능과 활용’ 카프카연구 23집, 한국카프카학회, 2010, 293쪽.

Joyce C. Mills 등 은유 치료 전문가들은 은유를 활용한 심리치료 단계를 “제시된 문제 - 개발된 자원 - 나타난 결말 Problems addressed - Resources developed - Outcomes offered” 소위 ‘PRO’ 패턴을 기본으로 한 치료과정을 유지하였다.¹¹⁾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과 관련하여, 프로이트식 정신분석이 문제해결을 위한 문제의 원인 파악을 위해서 내담자 심리 기제 분석에 상당한 비중을 둔다고 본다면, 번즈를 위시한 이들 은유 치료자들은 치료를 위해서 문제의 원인 분석에 대한 비중보다는 문제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 개발을 통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심리치료를 선호한다. 본 연구자의 관점과 이번 사례 연구와 관련해서도, 현재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드러나는 양육관련 문제가 오로지 영유아기와 성장기에서만 형성되었다든지, 그 당시 문제가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의 문제로 작용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문제의 원인은 시간의 경과와 여러 사건 그리고 삶의 주체인 내담자의 다양한 경험, 회복력 등을 통해 성인기를 거치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원인에 대한 지나친 집중과 비중두기보다는 가능한, 연구 참여자의 삶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이들의 숨겨진 긍정의 이야기를 통한 은유적 이야기 치료 과정을 진행하고자 노력했다.

고미영은 이야기치료의 장점과 방법을 『이야기 치료와 이야기의 세계』에서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이야기치료는 이야기가 한 사람의 삶에 미치는 힘과 실제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 치료 방법을 발전시켰다. 이야기는 어느 한 개인이 어떤 사건에 줄 수 있는 의미를 결정하는 데 관여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자체를 구성하는 데 실질적인 힘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어떤 경험을 이야기로 선정하는가에 따라 한 사람이 그의 삶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믿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상처받은 경험을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그는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그것과 관련된 경험들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피해자로서의 이야기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라도 그 상처를 극복한 경험에 더 집중하게 될 때에는, 다른 이야기로 살게 된다. 그 사람은 상처로 인해 더 강해지고 현명해진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자신의 이야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 이야기는 자신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격려와 힘을 주는 이야기가 된다. 그 사람 자신은 이야기의 주제 즉,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처럼 삶의 어떤 경험에 우리가 집중하여 이야기를 만드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¹²⁾

“내담자들이 치료 상담 중에서 해 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어느 한 면에 치중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내담자의 삶에는 우리가 듣지 못했거나 발굴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아직 발굴되지 않은 이야기들 중에는 내담자 자신에 대해 다른 의미를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다수 포함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내어 현재의 삶에 연결시키는 것이 상담치료자의 할 일이다.”, “상담치료는 이러한 단선의 이야기를 다수의 이야기로 확장해 나가는 맥락을 창조해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거나 의미가 주어지지 않은 다른 방식의 삶에 관한 자기 이야기, 혹은 이야기의 다른 지역들을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상담치료자로서 찾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삶의 많은 사건들 속에 묻혀 있거나, 문제 이야기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된 이후로 그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린 이야기들이다. 또한 동일한 사건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파악

11) G. W. Burns 편저, 앞의 책.

12) 고미영, 『이야기 치료와 이야기의 세계』 청목출판사, 2004, 100~101쪽.

하거나 해석하여 새로운 안목으로 보게 되는 이야기를 찾는 것이다. 결국 상담자의 목적은 묻혀 있거나 잃어버린 이야기를 다시 발굴하여 새로운 대안적 이야기들이 그 사람의 삶에서 뚜렷이 드러나게 도움을 주는 데 있다.”¹³⁾

Ⅲ.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

Ⅲ. 1. 운영과 진행 방법

-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하고 아동의 문제행동에서 부모와의 연관성을 관찰하기
- 부모의 양육태도 개선을 위해서 양육태도 문제의 원인(사고)을 알기 위해서 면담과 질문지 작성
- 연구 참여자(아동의 어머니들)는 이야기 치료 사전에 이야기 치료, 상담 심리 치료 관련 도서 읽기와 학습(자가 학습 포함), 관련 도서로는: George. W. Burns 『이야기로 치유하기 - 치료적 은유 활용 사례집 *Healing with Stories - your casebook collection for using therapeutic metaphors*』 학지사, 2011. / George. W. Burns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마음을 치유하는 101가지 이야기 *101 Healing Stories for Kids and Teens: Using Metaphors in Therapy*』 학지사, 2009. / Paul C. Vitz 『신이 된 심리학 *Psychology as Religion*』 새물결플러스, 2010. / M. Scott Peck 『거짓의 사람들 *The People of the Lie*』 비전과 리더십, 2003. 등
-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 점검: 서술식으로 해당 연구 참여자에 의한 점검, 연구책임자에 의한 점검, 부모 간의 상호 점검, 필요하다면 해당 아동의 가까운 지인에 의한 점검 등
- 부모가 자녀의 문제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더라도 객관적인 관찰을 통한 진단 작업 진행
-
-
-

Ⅲ. 2. 부모 대상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를 위한 사전 질문지

이번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의 목적은 연구 참여자가 양육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여, 추후 이번 연구와 별도로 진행할 ‘자녀의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연구 참여자(양육자)의 자녀양육태도와 그 관련 사항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 이후에 진행될 후속 연구의 프로그램에서 자녀의 문제행동이 효과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세하고 적극적으로 질문지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I-1. 자녀의 문제행동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나는 내 아이(들)의 문제행동들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거나 생각해보지 않았다.
- ② 나는 내 아이(들)의 문제행동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보지 않았다.
- ③ 나는 내 아이(들)의 문제행동들에 대해 알고 있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 실행해봤지만 개선하지는 못했다.
- ④ 나는 내 아이(들)의 문제행동들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여 그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적절한 대책

13) 앞의 책, 113쪽.

을 세우고 실행하여 개선한 경험이 있다.

I-2. 내 아이(들)의 문제행동들을 알고 있다면(②~④)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II-1. 아이(들)의 문제행동들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높음
- ② 높음
- ③ 보통
- ④ 낮음
- ⑤ 매우 낮음

II-2. 해당 번호를 고른 이유에 대해 적어보시오. 또한 문제행동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얼마나 효과를 내는지를 적어보시오.¹⁴⁾

III-1. 자녀에게 얼마나 지시적 · 명령적인 언어를 사용합니까?

- ① 거의 그러하다.
- ② 자주 그러하다.
- ③ 종종 그러하다.
- ④ 가끔 그러하다.
- ⑤ 거의 그러하지 않다.

III-2. 위의 'III-1'에서 본인이 답한 것을 참고하여 본인의 양육태도에 관하여 서술하고 본인과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 행위, 상황 등의 사례를 두세 개 정도 들어 적어보시오.¹⁵⁾

IV-1. 아이(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속마음 표현에 있어 어떠하십니까?

- ① 속마음을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 ② 속마음을 표현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 ③ 속마음 표현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었으나 실행에는 인색했다.
- ④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서 가끔 실행했다.
- ⑤ '나는 OO(이)가 OO할 때(하면) 속상해(화나, 슬퍼...)'와 같은 방식으로 속마음 표현을 한다.

IV-2. ①~④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보시오. ⑤을 선택했다면 본인의 사례를 서술식이나 대화식으로 적어보시오. 더불어 ⑤과 같은 속마음 표현 외에도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행동에 반응한다면 그것들이 무엇인지 적어보시오.

V-1. 나와 함께 살았던(대개 결혼 전)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는지 자유롭게 적어봅시다.

(친절, 관대, 넉넉함, 배려, 사랑, 아쉬움, 고통, 상처, 무관심, 분노, 안타까움... 등등)

V-2. 본인의 양육태도와 본인 부모님의 양육태도가 닮았습니까? 닮았다면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릅니까? 또한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행했던 태도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사하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합니까?

VI. 배우자의 양육태도는 나의 양육태도와 닮았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배우자의 대응 방식은 어떠합니까? 배우자의 양육태도의 장점, 단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문제행동 개선을 위해서 배우자와 함께 하는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4) 반응으로는 심한 체벌, 적절한 체벌, 극한 분노, 분노, 답답함, 짜증, 포기, 꾸지람, 잔소리, 무감각, 실망, 큰문제로 보지 않음, 효과적인 해결 방법 찾기,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친절하게 설명하기, 이해시키기, 기다려주기 등등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가 이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합니다. 상황 묘사, 실제 대화를 적어도 됩니다.

15) 양육태도와 방법에 대한 예들을 나열하면, 자세하게 설명해주기, 기다려주기, 안아주기, 동화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교감하기, 안아주기, 놀이동산, 야외 활동, 또래 아이들 부모 간의 만남과 양육 방법 공유, 생각하는 의자, 설득, 벌, 매 등등

VII-1. 언어생활에 있어서 일상어, 사실적 표현, 성인들의 표현보다는 동화책과 같은 은유적 표현이 내 아이(들과)와 성장하는 유아, 아동, 청소년들에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공급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었지만 읽어주지 않았다.
- ② 모르고 있었고 읽어주지 않았다.
- ③ 모르고 있었지만 조금 읽어주었다.
- ④ 모르고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읽어주고 있다.
- ⑤ 잘 알고 있어서 그림책, 동화책 등을 읽어주기는 했지만 형식적이다.
- ⑥ 잘 알고 있어서 그림책, 동화책 등을 계속적으로 즐겨 읽어주고 있다.

VII-2. 본 연구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양육태도 문제 확인 →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 확인과 개발 → 문제해결을 위한 이야기 창작”으로 진행됩니다. 더 요약하면 ‘이야기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치료하는’, 문예창작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부모 대상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므로써, 양육태도의 문제점을 연구책임자 및 동료 연구 참여자들과 협력하여 점검·개선(치료)하고,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자로서의 역량을 개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이유도 함께 말씀해주시면 연구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본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기대, 의문, 우려 그리고 연구책임자가 주의할 사항, 참고할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V. 교육과 치료 사례(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야기)

IV. 1. 개요 및 상황

- 눈에 보이는 장애가 아니더라도 사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일반 가정’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정신과 치료나 상담심리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자신의 문제를 바꾸려는 의지와 용기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연구와 교육에 참여하는 이들도 ‘일반 가정’이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가정’, ‘평범한 가정’도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치료가 시급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통상적으로 자녀 양육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지니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치료가 절실한 이유다. 그리고 가정에서 큰 문제로 여기지 않거나 쉬쉬하는 문제가 간과되어서 안 되는 문제이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은유적 스토리텔링 교육과 치료는 필요한 과정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연구 참여자(내담자)의 배경: 대학 졸업, 대학원 재학, 문학 읽기와 글쓰기에 소질이 많음, 비교적 글을 많이 썼고 책을 많이 읽었음, 한 어머니는 책을 출판 과정에 있음. 이 그룹은 사전에 어느 정도 친밀한 친분 관계가 형성된 상태라는 점에서는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 그룹을 형성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 연구 참여자 모두 기독교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 모임에서는 연구책임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위대하고 크고 절대적인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M. 스캇 펙의 말을 인용할 수 있다. “치유란 사랑의 열매다. 그것은 사랑의 한 기능이다. 사랑이 있는 곳엔 어디나 치유가 함께 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치료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역설적이지만 악의 심리학은 사랑의 심리학이 되어야만 한다. 거기엔 생명에의 사랑이 가득 흘러 넘쳐

야 한다. 그 방법론은 단계마다 진리를 향한 애정뿐 아니라 생명을 향한 사랑에 귀속되어야만 한다. 즉 빛과 웃음과 훈훈함, 기쁨과 자발성과 섬김과 돌봄 등을 향한 사랑의 제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¹⁶⁾

- 교육과정, 방법, 기간: 교육시간은 2주에 한번 모여 2~3시간 동안 모임을 함, 회기는 10회 전후로 진행하고, 회기 전반부에는 미리 정한 분량의 책을 읽어 오면, 모임에서는 자료에 대한 학습과 더불어 연구 참여자의 자라온 삶과 부모님과의 관계와 관련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 회기 후반부에는 전반부에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은유적 이야기 창작 과정을 진행.

- 연구 참여자에 대한 진단: 이들 각자의 자원 모으기, 자원을 이야기로 개발하기(1차 창작, 2차 창작 및 교차 수정, 3차 수정과 완성), 실행하기(실행, 변경, 재실행); 조를 이루어 동료 연구 참여자가 해당 연구 참여자를 위한 이야기를 창작, 연구책임자가 검토, 수정, 보완 작업을 진행, 다시 원저자가 수정, 보완, 완성.

IV. 1. 사례 1.

- 현재 진행 중인 모임에서 연구 참여자와 연구책임자가 공동으로 개발 중에 있는 이야기다. 개발자들은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바탕으로, 문제의 이야기(과거의 아픔으로 가득한 현실의 이야기)에서 새로운 이야기(희망의 이야기, 연구 참여자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야기, 연구 참여자의 장점을 복돋아 주는 이야기 등)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 이야기 치료의 피당사자인 연구 참여자2는 어머니와의 관계,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 모임에서 적지 않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 “대부분의 가정은,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여자문제’가 우리사회에서 보편적인데... 우리는 엄마의 ‘외출’이 우리 남매에게 적지 않은 상처가 되었어요.”(연구 참여자2)

-딸이 엄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 앤서니 브라운의 「우리 엄마」를 활용하여.(조OO 집사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by 김OO)

우리 엄마는 굉장해요.
우리 엄마는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깨우세요.
우리가 일어나면 깨끗하게 단장해 주시죠.
우리는 삼남매라 엄마의 아침은 쉽지 않답니다.
엄마가 해주신 맛있는 아침 식사는 우리의 심술에 뒤로 밀려나기 일쑤지요.
그래도, 그래도
우리 엄마의 아침은 항상 그 자리에 있던 무언가처럼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요.

학교가 끝나면 엄마에게 가요.
엄마가 집에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지요.
엄마가 문을 열고 반겨주실 때면 나는 왠지 그 품에 꼭 안겨 있고만 싶어요.
엄마가 안 계실 때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마음에 신이나요.

16) 스캇 펙, 『거짓의 사람들 People of The Lie』 서울, 비전과리더십, 2010, 76~77쪽.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면, 우리는 괜히 심술을 부려요.
그래도, 그래도
우리 엄마는 딸각! 문을 열고 들어와 나의 기댈 곳이 되어 주시죠.

우리 엄마는 가끔 외출을 해요.
화장대에 앉은 엄마의 뒷모습은,
식탁에 진수성찬을 차려놓는 엄마의 뒷모습은,
웬지 나를 화나게 만들어요.

예쁜 우리 엄마,
요리 잘하는 우리 엄마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실 때면,
나의 마음도 꼭 잠기어 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가 현관문을 여시는 소리가 이내 곧 들릴 때면,
나의 마음도 활짝 열려버렸죠.
사랑하는 우리 엄마.

이제는 생각합니다.
그 때는 내가 너무 어렸다는 것을.

이제는 후회합니다.
그 때 엄마의 앞모습을 보아 드릴 것을.
엄마의 뒷모습만 보고 엄마를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이해합니다.
엄마에게도 엄마가 필요했다는 것을,
엄마에게도 자기 자신이 필요했다는 것을.

-엄마가 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 채인선의 「딸은 좋다」를 활용하여(조OO 집사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by 김OO)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그래도 아들이 최고지!
엄마는 그 때마다 웃음을 지었다.
우리 딸.
우리 딸, 미전이.
엄마에게는 딸이 둘이나, 그렇게 좋다는 아들도 하나 있지.
하지만 엄마에게는 무엇보다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딸, 나의 첫 딸, 미전이가 있었단다.
네가 문을 열고 학교를 갈 때면,
네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올 때면,
넌 내게 늘 기대를 주는 딸이었다.

오늘도 너희들은 심통을 내고,
애써 차린 밥상은 먹는 등 마는 등 하고,
하루에 천 번쯤은 엄마를 찾는구나.

엄마도 너희들처럼 분명히 그 시간을 거쳐 엄마가 된 것일 텐데
가끔씩 너희를 참아내지 않으면 안되는 시간이 있었다.
엄마가 분명히 낳은 자식이었지만
품을 수 없는 날도 있었다.

문을 열고 나갈 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 딸 미전이는 나를 쳐다보았지.
할 말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오늘은 나를 찾아온 우리 딸 미전이가
할 말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나를 보는구나.
하루종일 어린 두 아들과 다니는 네가 무슨 말을 할까.

나는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단다.
이제는 안다고. 그 때 몰라준 것 미안하다고.

이제는 나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는 나도 품을 수 있는데.

그 때를 지나와 지금의 내가 있다.
그 때를 지나는 우리 딸도 엄마보다 더 좋은 할머니가 되어 있겠지.

늘 기대와 칭찬이 되어주었던 우리 딸.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엄마의 외출(조OO 집사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by 선OO)

아빠의 야간근무가 있는 날
오늘 저녁에도 어김없이 엄마는 외출을 한다.
나와 여동생, 남동생을 남겨둔 채
엄마의 예쁜 미소는 나를 향하지 않는다.
엄마의 예쁜 옷을 차려입은 예쁜 모습은 나를 향하지 않는다.
거실의 밝은 형광등도 엄마의 예쁜 미소보다 밝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된 집안도 엄마의 모습보다 예쁘지 않다.

엄마가 현관을 나선다.

자물쇠가 잠기는 "찰칵" 소리는 다시는 만나지 못할 이별의 소리같다.

저녁시간 몇 시간 뒤면 돌아올 엄마인데

어린 동생들을 아직 어린 나에게 맡겨두고 간 그 짐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랬을까.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랬을까.

노을 지는 저녁 현관의 "찰칵"소리는 그렇게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나에게도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의 소리로 눈물짓게 한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가 된 나...

남편이 퇴근하지 않고 있다.

두 아이와 남편을 기다리며 아옹다옹 하는 시간, 옆집 현관문이 "찰칵"하며 잠기는 소리가 들린다.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나의 엄마는 아빠가 야근을 하는 날이면, 자신에게 선물을 주듯

예쁘게 꾸미고는 어린동생들을 아직 어린 나에게 맡기고는 집을 나서셨다.

한번, 두번 처음에는 그런가보다 한 엄마의 외출이 잦아지면서 나는 웬지 모르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나를 엄습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동생들이 말을 듣지도 않고, 엄마가 없는 저녁이면 어김없이 어질러지는 집으로 외출에서 돌아오는 엄마의 꾸지람이 힘들기만 하다.

엄마가 없는 저녁시간, 동생들과 셋이서의 시간이 혼자가 아니지만, 영영 혼자가 된 듯한 외로움과 엄마가 우리를 두고 떠나버린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왔다.

몇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어질러진 집을 보고 우리에게 꾸지람과 야단을 치는 엄마가 야속하고 밉기만 하다고 여겼었다.

내가 정말로 두려웠던 것은 "찰칵"소리와 함께 엄마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다.

엄마에게 말해주고 싶다.

엄마 아직 나는 어려워요. 나는 아직 엄마의 따뜻한 눈길과 미소가 필요한 어린

OO이예요 라고

제목: 아자! 동생들은 내 차지예요. {1차본 제목, '엄마의 외출'을 수정한 2차 이야기(조OO
집사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by 백OO)}

아빠의 야간근무가 있는 날이면 엄마는 어김없이 외출을 해요. 나와 여동생, 남동생을 남겨둔 채로 말이죠. 엄마의 미소는 예쁘지만 나를 향한 미소는 아니예요. 그리고 예쁘게 차려 입은 엄마 모습도 나를 향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거실의 밝은 형광등도 엄마의 예쁜 미소보다 밝지 않아요.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되고 우리 남매 셋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예쁘게 가득 차려 놓았지만 엄마의 모습은 예쁘지 않아요.

시간이 되면 엄마는 현관을 나서요. 어린 동생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양 엄마와 해맑게 인사를 나눕니다.

“찰칵”

음... 생각을 달리 하기로 했어요. 부모님 없이 우리 셋만 있는 이 기회를 멋지게 보내기로 말이죠. 엄마와 함께 있을 땐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기로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 걱정도 오늘부터 안 하기로 생각을 바꿔 먹었어요. 저는 엄마가 엄마의 외출을 고민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같은 어린 애들을 떼어 놓고 외출할 결정을 했다는 것은, 저는 아직 어려서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불쑥 들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엄마는 몇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오늘 제가 들은 그 “찰칵” 소리는, 마치 우리 남매를 별나라 판세계로 인도하는 마법 막대기 소리처럼 들려요. 평소엔 텔레비전을 보거나 동화책을 읽거나 인형과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 말고는, 집에서 신나게 뛰어 놀거나 집안을 어질러 놓고 놀이를 하는 것은 엄마 성격에 우리 남매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엄마가 ‘출근’하는 날엔 그 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순서대로 꼭 할 거예요. 호호호 ♪

오늘은 뭘 할까? 엄마가 차려주신 과자를 먹으며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을 순 없다고 말씀 드렸죠. 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하고 싶는데 뭐가 좋을지 모르겠네요. 동생들을 챙겨야 하는 사람은 저니까 동생과 함께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말이에요, 자랑은 아니지만 가족과 친지들은 제가 뭐든지 잘 하는 아이라는 칭찬을 많이 해줘요. 저는 정말 제가 그런 칭찬을 들을 정도로 매사에 완벽한 아이인진 잘 모르겠어요.

두 동생들은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해요. 사람 모양의 인형을 가지고 엄마, 아빠, 친구, 이야기 속의 사람들이 되는 놀이를 재미있어 해요. 저도 이야기 듣는 것 못지않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요. 저는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를 무척 좋아해요. 어떤 이야기를 동생들에게 들려주며 함께 놀아볼까 잠시 생각했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오늘 저녁에는 요셉 이야기를 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바뀌어서 말이에요.

동생과 제가 갖고 있는 인형들을 한 데 모았어요. 동생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니 둘이 좋다고, 기뻐하면서 해달라고 제 주위에 인형을 갖다놓고 앉았어요. 제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를 인형과 함께 해주었어요.

요셉: 난 아무 죄가 없다고. 내가 부모님과 형들한테 버릇없이 군것도 아니고, 정말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형: 넌 너무 잘난 척을 이때까지 많이 한 것을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기억 안나?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라고.

요셉: 난,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한 말들을 그대로 부모님과 형들한테 말했을 뿐이라고. 내가 잘났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잖아!

형: 그래도 그렇지 들었으면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지 네 입으로 들은 얘기들을 그대로 말해! 뭐 그리고 우리 가족이 너한테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한다고! 그래 어디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고! 하하 하

형들은 어린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놓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

논찬글

안석(서울기독대학교 치유상담대학원 교수)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에 관한 사례 연구

- 부모의 양육태도 개선을 중심으로 -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에 관한 사례 연구 -부모의 양육태도 개선을 중심으로’는 복합학
적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 연구에서는 문학, 교육학, 심리학, 상담치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를 보다 정확하게 학문적 영역에서 설정한다면, 문학적 활동을 중심으
로 한 예술 치료의 한 분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서 문학 영역은 적어도 은유, 이
야기, 창작, 스토리텔링에 대한 개념과 실재를 담고 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은유적 이야
기 창작을 위한 국어교육(문학교수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심리학
과 상담치료 지식을 기반으로 한 실제 이야기 교육과 모임(회기)을 진행하고 있다.

문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일반적으로 ‘교육’, ‘유희’, ‘치유’를 꼽는다. 이 가운데에서 연구
자(문학교수법, 스토리텔링교육 전공)는 문학연구에서 가장 등한 시 되어온 문학의 치료적 기
능을 이론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왕성
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연구가 질적 연구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아직 연구 중에 있는 이번 발표문을 위해서 이후 연구 진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논찬자의
제안을 두 가지 드리고 싶다. 첫째는, 연구주제의 구체화이다. 개별 연구 참여자(내담자)를 중
심으로 한 특정 문제사례에 집중한 이론과 실제 연구가 이루어져서 연구 주제가 구체화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고 싶다. 두 번째는, 아직은 회기가 진행 중에 있는 관계로, 은유적 이야
기를 통한 연구 참여자의 치료 효과를 예상할 수 없겠으나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단기간의 괄목할만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
자들에게 치료 목적의 은유적 이야기 창작 실력이 회기 시작 전보다 눈에 띄게 향상되고 치료
효과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